



즉시 배포용: 2018 년 8 월 23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직장 내에서 다양성, 포용성, 안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2018 년 9 월 12 일까지 의견 및 피드백을 청취하기 위해 뉴욕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정책, 교육, 관련 지침의 모델 초안 발표

2018 년 뉴욕을 위한 여성의 어젠다: 동등한 권리, 동등한 기회(Women's Agenda for New York: Equal Rights, Equal Opportunity)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미국을 선도하는 성희롱 방지 대책

주정부 기관의 고용 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모든 민원 조사를 인계받을 것을 주지사 직속 직원 관계 사무국(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 GOER)에 지시 -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정명령

뉴욕주 전체 인력의 다양성 및 포용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다양성 담당 수석 책임관 및 공무원 인사부(Civil Service) 커미셔너의 임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직장 내 차별과 성희롱을 해결하고 그리고 민간 부문과 주정부 기관 양쪽 모두에서 더욱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는 뉴욕주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성희롱법에 대한 자료 초안 및 지침의 공개와 주지사 직속 직원 관계 사무국(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이 주정부 기관의 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모든 조사를 인계받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다양성 사무국(Diversity Office)의 수석 담당관과 공무원 인사부(Civil Service)의 커미셔너에게 새로운 뉴욕주 전체 인력 다양성 및 포용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해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입장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희롱 방지법을 구축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성희롱이 용인되지 못하도록 뉴욕주 전 지역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직장 내 차별을 예방하고 뉴욕 여성을 위해 싸우기 위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뉴욕주 전 지역의 직장에서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 공약의 실천입니다. **Cuomo** 주지사님과 저는 성폭력, 성희롱,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뉴욕주 여성과 소녀 자문 위원회(Council on Women and Girls)의 회장인 Melissa DeRosa 주지사 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Cuomo** 주지사님은 직장 내의 만연하는 성희롱의 확산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희롱 방지 대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담한 조치를 통해, 뉴욕은 성희롱이 퍼지는 것을 용인하는 비밀스런 문화와 권력 남용을 직접 겨냥하여 방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위한 투쟁의 길을 뉴욕은 다시 한번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직장 내에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 주지사의 이전 조치들을 기반으로 삼습니다. 지난 4월에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민관 고용주들이 구직 희망자들에게 급여 및 보상금의 기록에 관해 묻는 것을 금지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서 뉴욕을 정상화 시키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 주지사가 서명한 (1) 주정부 기관들이 급여 기록에 근거하여 구직 희망자를 평가하거나, 주정부 계약업체에 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등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2) 투명성을 촉진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남녀 간의 동일 임금을 추진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두 차례의 [행정명령](#)에 기초합니다.

2017년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범위, 경제적 영향 등을 연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권고안을 발표할 것을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에 지시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이 보고서는 경제적인 스펙트럼과 뉴욕주 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하여 뉴욕의 성별 임금 격차 상태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해, 다양한 우수 후보자 채용을 가속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및 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의 추진을 포함하여, 주 정부 인력에서 소수 민족의 수를 늘리는 대담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지사의 다양성 및 포용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Diversity and Inclusion)가 권고한 조치입니다.

뉴욕주의 최신 성희롱 법 초안 자료 및 지침 발표

지난 4월 12일에 **Cuomo** 주지사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성희롱 방지 대책 방안이 포함된 2019년 뉴욕주 예산안(New York State Budget)에 서명했습니다. 이 방지 대책은 2018년 [뉴욕을 위한 여성의 어젠다: 동등한 권리, 동등한 기회\(Women's Agenda for New York: Equal Rights, Equal Opportunity\)](#)를 대표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뉴욕주의 모든 민관 고용주들이 현행 정책을 채택하여 그대로 적용하거나 고유의 자체 정책을 만드는 데 그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성희롱 방지 정책 모델을 수립합니다. 이는 또한 모든 주정부 계약업체들이 성희롱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책에 따라 모든 직원들을 교육시켰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오늘 발표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웹사이트](#)
- 고용주의 성희롱 예방 정책 및 교육을 위한 최소 기준
- 성희롱 예방 정책 모델 - 이 정책은 “최소 기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업체는 이 정책을 채택하여 그대로 적용하거나 고유의 자체 정책을 만드는 데 그 기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이 모델 정책에 명시된 최소 기준을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 성희롱 민원 신고 양식 모델
- 모델 교육(대본 및 파워포인트(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자주 묻는 질문(FAQs)

오늘 발표된 자료는 초안 문서입니다. 주정부는 이 제안된 자료에 대하여, 고용주와 직원을 포함한 일반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2일까지 또는 그 이전에 새로운 웹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2018년 10월 9일부터 모든 민관 고용주는 정책을 반드시 채택해야 하며, 모든 직원에게 정책 및 연례 교육의 문서 사본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정부 하청업체는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고 모든 직원을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성희롱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정부 기관의 고용 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모든 민원 조사를 인계받을 것을 주지사 직속 직원 관계 사무국(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에 지시

더 많은 고용 차별과 성희롱 민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완전하며 시의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러한 조사가 잠재적인 모든 이해 충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 직속 직원 관계 사무국(GOER)이 직원, 하청업체, 인턴 또는 주정부 기관에 고용된 기타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모든 조사를 진행하는 책임을 진 주체가 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주정부 기관에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사기, 학대, 범죄 활동, 이해 충돌, 사무실 내 권한 남용 또는 훼손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감사관실(Inspector General's office)에 민원을 추가로 계속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지사 직속 직원 관계 사무국(GOER)이 조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직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조정이 필요합니다. 변경 사항에는 차별 및 성희롱 민원 처리에 관련된 기관의 모든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절차에 대한 최신 교육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전체 인력의 다양성 및 포용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다양성 담당 수석 책임관 및 공무원 인사부(Civil Service) 커미셔너의 임무

오늘의 행정명령은 공무원 인사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 내에 다양성 관리 사무국(Office of Diversity Management)을 설립할 것을 지시합니다. 다양성 관리 사무국(Office of Diversity Management)은 뉴욕주 전체의 다양성 및 포용성 계획, 정책, 프로그램 등의 효과적인 개발 및 시행에 있어 공무원 인사부(Civil Service) 커미셔너 및 뉴욕주 다양성 담당 수석 책임관을 지원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을 위한 기회 확대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다양성 및 포용성에 관한 주지사 직속 자문위원회(Governor's Advisory Council on Diversity and Inclusion)의 권고안을 토대로 한 이 행정명령은 다양성 담당 수석 책임관 및 공무원 인사부(Civil Service) 커미셔너가 기관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감독하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뉴욕주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성 및 포용성 지침(Diversity and Inclusion guideline)을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또한 모든 주정부 부서와 기관들에게 다양성과 포용성 관련 계획, 정책, 프로그램 등의 수립과 조정에 있어 그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주지사, 다양성 담당 수석 책임관, 공무원 인사부(Civil Service) 커미셔너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다양성 및 포용성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for Diversity and Inclusion)를 설립합니다.

성희롱이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추가 대책

Cuomo 주지사는 2018년 [뉴욕을 위한 여성의 어젠다: 동등한 권리, 동등한 기회\(Women's Agenda for New York: Equal Rights, Equal Opportunity\)](#)에 더욱 기초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퇴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요건을 제외하고 이 새로운 법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가 성희롱과 관련하여 고용 계약 시 의무적인 중재 조항(mandatory arbitration provision)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성희롱과 관련되어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되어 지급된 모든 주정부 지불금이나 공적 지불금을 상환할 것을 주정부나 모든 공공 기관의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요구합니다.
- 비공개 계약은 기밀 유지 조건이 피해자가 분명하게 선호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업무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해 업무 현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계약업체, 하청 업체, 공급 업체, 컨설턴트 또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합니다.

Lourdes Zapata 뉴욕주 다양성 담당 수석 책임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성은 뉴욕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계속 직장에서 차별과 성희롱을 당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치는 (1) 다양성 관리 사무국(**Office of Diversity Management**)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다양성 및 포용성 계획을 수립하고, (2) 민관 고용주들이 적절하게 위법 행위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저희는 보다 포괄적이고 생산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의 모든 사업체가 성희롱 예방을 위한 높은 기준을 갖추도록 보장하여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실시한 성별 임금 격차 연구(**Gender Wage Gap study**)의 일환으로, 저희는 직장 내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전체 직장 생활 동안 겪어온, 개인의 능력을 억누르는 성희롱의 끔찍한 사례들을 청취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저희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 행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성희롱의 대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의 Helen Diane Fost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은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법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지사님과 주정부 공약의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주지사 직속 직원 관계 사무국(**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의 **Michael N. Volforte**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모든 유형의 직원 차별과 성희롱에 대해 매우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새로운 조치는 민관 영역 모두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직원에게 더욱 안전하고 포용성을 갖춘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공무원 인사부(Department of Civil Service)의 Lola W. Brabham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오랜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저희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기회를 만들고 강화하기 위해 계속 극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치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뉴욕주의 전체 노동자를 위해 다양성, 포용성, 평등의 기회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과 구현을 앞으로 오래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

[구독 취소](#)